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이산가족 상봉,
행정 편의주의 적십자사를 규탄한다

테마기획

2018년 10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인 터 뷰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턴 조원석 씨

포 커 스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속 그 장면,
실제로는 어떨까?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귀성

04 | 시선집중

▶ [성명서]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이산가족 상봉, 행정 편의주의
적십자사를 규탄한다

06 | 테마기획

▶ 2018년 10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08 | 인터뷰

▶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턴 조원석 씨

10 | 포커스

▶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속 그 장면, 실제로는 어떨까?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자율자동차 탈 날을 학수고대하며
조재훈(시각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13 | 월드 리포트

▶ 중국 쿤밍,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점을 소개합니다!
▶ 칠레 산티아고, 손으로 느끼는 벽화 거리 조성해

14 | 뉴스앨범

▶ 감성을 적시는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 흥겨운 리듬, 난타에 빠져보세요!
▶ 아이들의 감성, 음악으로 키워주세요!
▶ 가족과 함께 속초로 떠나요!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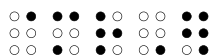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탈 때



9월에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성 계획은 세우셨나요?

귀성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귀성

① ④
② ⑤
③ ⑥

점 자 일 랑 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
받 침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쓰받침	○○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ㅑ ○○ ○○○		ㅓ ○○ ○○○		ㅕ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약 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숫 자	수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		말줄임표(...) ○○ ○○○			말줄임표(...) ○○ ○○○			소괄호() ○○ ○○○			대괄호[] ○○ ○○○		
영 어	영어식자 ○○ ○○○	끝 ○○ ○○○	대문자 ○○ ○○○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아포스트로피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ㅆ, ㅍ'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이산가족 상봉, 행정 편의주의의 적십자사를 규탄한다!

우리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8월 20일부터 꿈에 그리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 만남은 온 국민의 기대와 설렘이 담겨져 있는 만큼 역대 최대의 지원인력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이다.

하지만 이 만남의 행사에 시각장애인이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68년의 한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묻을 수밖에 없게 된 79세의 시각장애인.

그렇게 된 것은 적십자사의 무관심과 융통성 없는 행정 편의주의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기에 안내인이 필요한데 배우자는 건강 악화, 자녀들은 생계곤란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금강산에서 68년의 기나긴 한을 풀고 있을 한 시각장애인의 꿈을 행정 편의주의가 무참하게 짓밟았다. 더구나 본인의 의지가 아닌 적십자사의 무관심과 행정 편의주의로 상봉을 포기하게 되었음에도 적십자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상봉포기각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인도주의를 실천해온 적십자사의 커다란 업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적십자사의 해명 자료는 구차한 변명과 그 책임을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할 뿐 향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산가족의 가슴에 풀지 못할 한을 남기게 한 적십자사를 25만 시각장애인과 함께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안내인이 없어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하게 된 김모 시각장애인의 상봉을 추진하라.
2. 장애인 이산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INDONESIA
2018**
ASIAN PARA GAMES

2018년 10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가열립니다!

지난 8월을 스포츠의 열기로 물들인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재미있게 보셨나요?
곧이어 10월에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가 열립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이 열린 후에 열리는 일종의 패럴림픽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고, 장애인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태평양경기대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데요. 극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42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패럴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 4주기로 열리는 대회인데요. 지난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를 필두로 지난 2010년 광저우에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때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로 종합 2위를 하였는데요. 이번 2018 인도네시아 대회에서도 종합 2위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는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골볼, 유도, 역도, 사격, 수영, 탁구, 배구,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 테니스 등 총 18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골볼은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로써 시각장애인이 체력을 향상시키고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재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대회의 마스코트는 MOTIVATION(동기)과 MOBILITY(기동성)의 앞글자를 딴 축약어 모모(MOMO)로 힘든 역경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원형 엠블럼은 아시아 전역 다양한 국가들의 조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거리와 좋은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아직도 사회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국민들의 응원과 함께 금빛 레이스를 질주하던 아시아게임의 열기가 10월 2018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2018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 간	2018. 10. 6.(토) ~ 10. 13.(토) 8일간
장 소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참가규모	43개국(예정)
대회종목	18개 종목 (568개 메달이벤트: 남 285, 여 236, 혼성 47)
개최종목명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사이클, 골볼, 유도, 론볼, 역도, 사격, 수영, 테니스, 탁구,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테니스, 체스 *우리나라 참가 종목 (17개)



대회상징물



대회마스코트

모모(MO-MO)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턴 조원석 씨



시각과 청각이 불편한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은 어떨까요?
지식채널e를 통해 밝힌 조원석 씨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석이라고 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손잡다'라고 하는 임의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현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담당자로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Q. 그렇군요.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으시면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A. 저는 안내견 '평등이'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지만 아직은 왼쪽 청력이 잔존해서 청력과 촉각에 의존하며 안내견 평등이의 도움을 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Q. 혹시 한국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에는 시청각장애인인구 통계자료도 실태조사 자료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출처가 불분명한 어느 통계자료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출현율이 약 0.02퍼센트라고 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대략적으로나마 조사되고 있는 나라들의 전체 인구수 대비 시청각장애인인구수에 근거하여 추정해볼 때 우리나라에는 약 5천 명에서 그 보다 조금 더 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WFDB(세계농맹중복장애인협회)에 참가해서 WFDB회장과 또 핵심 간부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어쩌면 그보다 적은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최근 동향으로는 한국에는 약 2천 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Q. 이전 질문의 답변에서 언급하신 WFDB(세계시청각장애인연합)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단체 인가요?

A. 세계의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베니도름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제5회 WFDB 총회 및 제11회 헬렌켈러세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번에 참가하였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설립해 WFDB의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와 같은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이곳에서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실태와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있지 않으며, 몇몇 자조모임이나 종교적 모임 등이 있고 임의단체로는 손잡다가 유일합니다.

Q. 그렇군요. 지난 5월에는 EBS의 지식채널e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을 사회에 알리게 되셨는데, 어떻게 촬영하게 되셨나요?

A. 사실 정확히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4월 2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및 당사자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헬렌켈러법이라고 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담은 개정안이었던거요.



Q. 이 영상에는 조원석 씨가 출퇴근하는 모습과 의사소통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A. 큰 파급효과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식채널e가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Q. 앞으로 국내의 법이나 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길 바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스페인에 가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관련 단체도 많을 뿐더러, 시청각장애인들이 점자로 텔레비전 자막을 볼 수 있는 기계도 개발하여 현재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기술 프로젝트는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과거 KT에서 했던 점어기 개발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청각장애인의 복지가 정책적으로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단체나 지원 등이 전무하다보니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법이나 제도가 아니더라도 작은 지원부터 하나씩 이루어나가며 사회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조원석 씨의 앞으로의 행보와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식을 쌓기 위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헬렌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듯이 사회의 관심이 국내의 시청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저희 단체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활동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지만 도와주실 분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holdhands0408@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속 그 장면, 실제로는 어떨까?



최근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두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놀이공원 간의 팽팽한 의견차가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은 어떨까요?

드라마 상의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놀이공원인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한 것인데요.

에버랜드는 T-EXPRESS를 비롯한 스릴의 난이도가 높은 7종류의 놀이기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전면 금지하거나 동승자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에버랜드의 이와 같은 조치가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금지 규정을 삭제 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이 탑승이 제한된 놀이기구에 탑승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은 해당 놀이기구들을 안전하게 탑승했고,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시각장애인 딸을 둔 엄마가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했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안전요원이 안전교육을 따로 받은 뒤 탑승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각장애인 딸의 엄마는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고 아르바이트생은 놀이공원의 규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시각장애인 딸의 엄마가 아르바이트생을 밀치게 되어 놀이공원 측에서 고소하게 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드라마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라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재판은 진행 중이며 10월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차별 없이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자율자동차 탈 날을 학수고대하며

조재훈(시각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로 인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글자를 볼 수 없거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큰 불편이 될 것이지만 특히 요즘처럼 이동이 빈번한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운전자의 시력이 없어도 스스로 운행되는 자율자동차가 나와서 운행된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산 자율자동차가 고속도로 시험 운행에 이어 시내 운행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내연기관에 의한 자동차는 사양에 100여년이 뒤졌지만, 현대과학에 의한 최신 자율자동차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모양이다.

1955년에 창경궁에서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가 열렸다. 그런데 그때 국산자동차가 전시되었다. 기껏해야 벼이삭, 연필, 고무신, 포도사탕, 사이다, 낫과 삽 같은 것이 진열되어 있는 전시장에 국산 자동차라니! 그런데 내가 몇 년 뒤 그 국산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곧 실망하였다. 그 자동차의 대부분이 미군들이 고철로 버리다시피 한 것을 주워 조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발 공장은 용산구 문배동에 있었는데 엔진, 차체, 조립완성, 도장 등에 200 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조립완성부에서 엔진과 변속기 위의 마감작업과 배연기를 부착하는 일을 하였다. 이 일은 기계와 철판을 다루는 일이라 자동차 생산의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적합한 것이었다. 공장에는 연구부가 있어서 휘발유를 쓰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목탄엔진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므로 국산자동차와 더불어 연료의 자급 역시 중요하였던 것이다. 국제차량공업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시발자동차를 시작한 최무성 사장은 권력과 이권경쟁에서 뒤지는 바람에 국산자동차회사의 반열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으나 애국심이 투철하였던 것 같다.

지금 사람들은 국산이니 외제니 하는 단어에 무관심인 것 같다. 나라가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의 애국심은 되찾을 수 없게 된 모양이다.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였지만 선진국의 발전에서 우리가 몇 년을 뒤져있고, 추월해 오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어떻게 걱정이 많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떨쳐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였다. 제대로 된 부속이 없어 이빨 빠진 톱니를 산소용접으로 재생해가며 차를 만들다가 자동차생산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 신형 전자기기의 최고 수준에 오른 우리나라가 아닌가? 심지어 국산 잠수함과 전투훈련기까지 그 성능을 인정받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명문대학을 거쳐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연구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저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빌려 발전을 한 일에 대하여 열등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킨 곳은 없다고 하였다. 최강대국인 미국도 유럽의 기술을 가져다 오늘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모두 서로 앞 다투며 외국 기술을 가져다 발전을 꾀하지만 한국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참으로 우리는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선진국 국민이 된 모양이다. 저명한 외국인 학자까지 한국인만 선진국 국민이 된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겸양의 미덕까지 갖추게 된 셈이다. 그리고 현대과학의 최첨단기술의 집합체라 할 자율자동차를 만들어 큰 사고 없이 주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다. 앞도 못 보는 내가 자율자동차를 타고 아들네 집이나 친구의 앞에 깜짝 나타나는 일을 생각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진다. 특히 폐기된 미군 자동차 부속을 수집해 국산이라고 하던 때의 부끄럽던 기억을 잊을 수 있지 않은가? 드림통을 두드려 차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그 바닥은 형편없는 철판으로 깔았던 시발택시를 타던 추억도 있다 그래서 나는 국산 자율자동차가 나오기를 누구보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북경에 사는 딸이 핵전쟁 운운할 때마다 우리 내외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중국에는 장애인용 택시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북한으로 철로에 이어 고속도로까지 생기면 딸네 집으로 자율자동차를 소리 없이 타고 가 정말 깜짝 놀래주고 싶다.

중국 쿤밍,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점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5일, 중국의 쿤밍(昆明, 곤명)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서점이 생겼습니다. 이 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독서, 카드 게임, 스마트폰 등을 할 수 있고, 친구도 사귀고 악기 연주, 합창회 등 다양한 문예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서점은 윈난(雲南, 운남)성 최초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민영 서점입니다.

이 곳의 직원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책을 찾아주기도 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스마트폰의 사용법도 알려주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손으로 느끼는 벽화 거리 조성해



칠레 산티아고에 독특한 벽화 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벽화 거리는 작품을 손으로 만져 감상할 수 있는데요. 벽화를 축소시킨 작은 동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 벽화를 촉각으로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행로 표면에 점자블록을 시공한 것은 물론이고 시각장애인용 위치정보 앱 '라사리요'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이 벽화거리 조성을 진행한 담당자 마리아 에리레네 알칼데는 "이 벽화 거리는 시각장애인들도 예술 작품을 즐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이해를 돕자는 취지로 조성되었다"며 "이 벽화 거리가 관광지에 조성된 만큼 조만간 투어 가이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감성을 적시는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색소폰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색소폰교실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대중가요부터 가스펠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색소폰 교실의 강사가 시각장애인들이 색소폰을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특별 교수법을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교실은 10명 정도의 인원이 매주 월요일 오후에 모여 1시간 30분씩 진행하며 다양한 기관에서 초청받아 연주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리듬, 난타에 빠져보세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난타교실이 한창인데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주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민요와 사물놀이를 통해 국악의 가락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7월부터는 흥겨운 노래에 맞춰 난타북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이들의 감성, 음악으로 키워주세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주관으로 시각장애 유아와 엄마의 교감발달을 위한 음악감성놀이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문 기관에서 수련한 강사가 음악감성놀이를 진행하며, 시각장애 유아와 엄마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교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속초로 떠나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속초에서 시각장애인 가정문화체험인 '우리가족 슈퍼슈퍼 그웨잇~'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캠프는 시각장애인 부모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며, GKL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오징어잡기, 파워보트, 친교의 밤이 진행되었고, 2일차에는 워터파크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투명 카누도 타고 문어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탈 때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할 때에는 도움을 주려는 의사를 시각장애인에게 말로 전달하시고 행선지를 파악하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후 빈 택시가 오면 탑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때 시각장애인의 오른손은 차의 문에, 왼손은 차의 지붕에 얹어주면 혼자서 차를 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해피콜 02-555-8787]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 번호 760816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